



KIA타이거즈 이범호 감독과 선수들이 지난 17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 세리머니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젊은 감독의 '형님 리더십'... 두터운 선수층 '큰 힘'

KIA, 7년만에 정규 시즌 우승
한국시리즈 직행... 'V12' 도전장
이범호, 초보감독으로 우승 일귀
베테랑·젊은피 신구 완벽한 조화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최종전(16차전)에서 0-2로 졌다. 이날 패배로 KIA는 올 시즌 83승 2무 52패(승률 0.615)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정규 시즌 매직 넘버 단 한 개를 남겨뒀던 KIA는 패배로 직접 매직 넘버를 지우지 못했지만 경기 종료 직전 2위 삼성라이온즈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 맞대결에서 4-8로 고배를 마시면서 1위를 확정 지었다.

KIA가 정규 시즌(단일리그 기준) 우승을 차지한 것은 전신인 해태타이거즈를 포함해 1991년을 시작으로 1993년, 1996년, 1997년, 2009년, 2017년에 이어 일곱 번째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김종국 감독이 금품 수수 혐의로 계약 해지된 후 갑작스럽게 사령탑에 오른 이범호 감독은 '초보 사령탑' 딱지를 떼고 '우승 감독'으로 거듭나는데 성공했다.

KIA가 정규 시즌 정상에 탈환한 데는 이 감독의 '형님 리더십'이 가장 큰 원동력으로 꼽힌다.

이 감독은 한화에서 김용용 감독, KIA에서 김기태 감독의 지도를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단과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구 조화' 역시 KIA를 정상으로 이끈 힘이다. 양현종과 김태균, 김선빈, 최형우, 나성범 등 1980년대생 베테랑들이 위에서 팀을 이끌었다면 한준수와 박찬호,

최원준과 정해영, 김도영 등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생 젊은 피들이 아래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했다.

지난해에 이은 줄부상 악재 속에서도 엔트리를 빈틈 없이 메운 선수층의 힘이 무시할 수 없다. 개막 직전 나성범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제임스 네일과 장현식까지 주축 선수들이 차례로 자리를 비웠고 특히 선발진에서는 양현종을 제외하고 네 명이 모두 이탈했다.

하지만 황동하와 김도현이 4선발과 5선발로 자리 잡으며 공백을 최소화했고 김건국과 김사운 등 대체 선발 자원들 역시 분투했다. 또 김규성과 홍종표, 박정우, 변우혁 등이 내야와 외야에서 존재감

을 나타냈다. 멀티 능력을 갖춘 자원들의 힘도 컸다. 지난 겨울 외야수에서 1루수로 변신한 이우성은 내야와 외야를 오가며 공수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내야 유틸리티 플레이어인 홍종표와 김규성과 함께 이적생인 서건창도 1루수와 2루수를 오가며 부지런한 모습을 보였다.

KIA는 이제 7년 만의 정규 시즌 우승을 넘어 열두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과 통합 우승에 도전한다. 포스트시즌은 10월 초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막을 올릴 예정으로, 한국시리즈는 다음달 20일께 광주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2·3·4면

인천=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호랑이 군단'이 7년 만에 KBO 리그 정규 시즌 왕좌를 탈환했다. 정규 시즌 우승과 함께

한국시리즈 직행을 확정 지으며 열두 번째 우승을 향해 용맹한 호랑이의 포효를 재현할 기회를 잡았다.

KIA타이거즈는 지난 17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랜더스와

제5기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000명
아카데미 Leadership (포럼 7회)
일정 Friendship (체육 행사 2회)
Patronship (전시 관람 1회)
교육기간 2024.09-2025.05
수강료 330만원(부가세 포함)
문의 전남일보 사업본부
(062)519-0730

세부 일정표

일자 및 회차	강사	분야
2024. 09. 26(목) - 포럼 1강	이광재 제35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정치
2024. 11. 28(목) - 광주비엔날레 관람 및 만찬		
2024. 12. 12(목) - 포럼 2강	최철 조선대 교수-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예술
2025. 01. 09(목) - 포럼 3강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경제
2025. 02. 06(목) - 포럼 4강	한재권 한양대학교 교수	로봇 공학
2025. 04. 03(목) - 포럼 5강	이경전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정보(AI)
2025. 05. 08(목) - 포럼 6강	한근태 한스컨설팅 대표, 서울과학대학원 교수	인문
2025. 05. 29(목) - 포럼 7강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	사회

